

료는 지원 단가와 지방정부가 제시하는 개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상한선 또는 부모 부담 보육료에 차이가 있어서 정부가 전액지원이라고 하지만 부모들의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만족도는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보육료 이외에 기타 필요 경비 상한선이 지역 차이를 보이며, 일부지역에서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고, 중앙정부는 특별활동 등에 대하여 아무런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정책도 향후 정책과제가 된다.

둘째, 만5세아에 대한 소득 제한의 적절성이다. 현실적으로는 부모들의 교육열로 굳이 정부가 취학준비를 시키지 않아도 별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명분상 만5세 무상보육이나 교육이 학교 준비를 기준으로 한다면 소득기준 제한을 없애는 것이 합리적이다. 외국 대부분의 국가 사례가 타당성의 근거를 제시한다.

셋째, 지원방식과 관련하여 특히 최근에 크게 증가한 부모보조금 지원과 평가인증 등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 수단과 연계가 되고 있지 않아서 재정 지원의 효율성 문제가 야기된다. 차등보육료는 물론 아동별로 지원하지만 시설이 수령하여 시설보조금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기본보육료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연계가 미약하다.

넷째, 양육수당의 지원은 정책적으로 부모들간

의 정부 지원의 형평성을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양육수당이 아동을 위하여 사용되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고, 보육시설 이용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아동 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과 또한 여성의 노동 참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금액 상향 조정이나 유아로의 대상 확대 등은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현금 지원인 아동수당으로의 전환 방안 모색도 정책과제가 될 전망이다.

다섯째, 보육예산 증대는 유아교육예산과 더불어 대표적인 영유아에 대한 조기 투자로 확대 자체가 갖는 의미가 크다. 그러나 유아교육과 농어업인 지원까지 다 합해도 국민 1인당 GDP 대비 비율은 0.617% 수준으로, OECD의 권고인 1%에는 많이 못 미친다. 한편 우리나라 보육예산의 지역적 격차가 매우 크다. 국고지원은 부모 보육료 지원 예산이 상당수이므로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지역이 예산이 더 많겠으나, 지방정부 특수시책사업 사업비는 추가적인 투자 규모를 나타내므로 특수시책사업비의 지역 차이는 지역간 불평등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이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김은설 연구위원

유아교육 지원 정책은 유아학비 부담의 경감, 유치원 교원인건비 보조를 통한 운영지원, 교육력 제고, 유치원 환경 개선 등 4개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의 성과로,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중 53.5%가 학비지원을 받아 2008년 대비 2009년에는 4.6%증가한 결과를 보인 점,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지원액의 시도별 증가, 교사의 근무여건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체교사 지원 정책, 인력지원인 3세대 하모니 사업, 교육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희망유아교육사 사업이나 종합복지서비스 등 교육력 제고를 위한 사업, 종일제 및 공립유치원 환경개선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취월율과 국공립 이용률의 지속적 상승이 이런 성과를 뒷받치는 지표가 된다. 향후 유아교육 정책의 과제로서는 5세무상교육의 조기 전면실시, 종일제 지원 확대, 교육력 제고 사업 세부 실천상의 개선, 학부모 교육비 부담율의 감소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유아교육 정책의 새로운 특성은 2009년 12월에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종합적인 발전 방안’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 방안에서는 유아교육 정책의 방향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유아학비 부담의 경감, 선진 유아교육 제도의 구축,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의 운영, 우수 교원 배치 및 활용,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가 그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방향성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추구될 것이고 그 중 일부 사업은 2010년에 이미 시범적으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유아교육의 새로운 도

약을 준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정리해 보는 것은 유아교육 선진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현실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본다.

## 1. 유아교육 정책 사업의 성과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06. 12.)을 통해 2008년부터 유아교육예산을 전액 지방비에서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교

육 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보통교부금'의 재정 수요액 측정항목에 따라 교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재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유아교육 지원 사업은 크게 유아 학비지원,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 유치원 교육력 제고, 유치원 환경개선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사업의 지원 현황과 예산 등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사업의 성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 가. 유아학비지원

교육과학기술부는 서민과 중산층, 다자녀 가정의 유아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유아학비의 지원 대상은 2009년 통계 기준 8,373개 기관에 재원하고 있는 537,361명 유아 중 가구소득하위 70%이하에 속하는 가구의 자녀이다.

2009년의 성과를 기초로 볼 때, 전체 유치원 재원 유아의 53.5%가 전액이든 일부든 학비를 지원 받고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4.6%의 지원율 상승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유치원 학비 지원 정책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영유아 인구수 감소와 다양한 교육기관의 난립을 고려할 때 461명이 감소하긴 하였으나, 학비지원 유아수는 24,674명이 늘어났다는 점은 향후 유치원 교육 보편화에 대한 인식이

〈 표 1 〉 유아교육 학비 지원율(2009)

구분	단위: 명, %				전년대비
	만3세	만4세	만5세	계	
재원 유아수	100,406	185,195	251,760	537,361	△461
학비지원 유아수	56,604	96,901	134,216	287,721	24,674 ↑
지원비율	56.4	52.3	53.3	53.5	4.6 ↑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표 1 참조).

현재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유아학비 지원 제도로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종일반비' 등이 있으며,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각각의 성과를 보고자 한다(표 2 참조).

#### 1)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라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도서·벽지 또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에게 우선 실시하고 차츰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확대해 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 2010년 현재 2,157억원의 국가 예산이 지원되어 129,000명의 5세 유아가 지원을 받고 있다.

#### 2)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현재 만3세 또는 4세 유아 중 소득하위 70%이내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상이 되며, 소득에 따라 30~100%까지 차등 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두 자녀이상 지원 특례가 적용되어 첫째아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지원 단가 전액이 소득하위 70%이하 유아에게 지원된

〈 표 2 〉 연령별 유아학비 지원액 및 추정 수혜자 수(2010)

대상	소득수준	지원율	연령	월지원단가		수혜자수 (추정)	지원총액 (추정)
				국·공립	사립		
만5세아 (무상교육비)	소득하위 70%이하	100%	5세	57,000	172,000	129,000	2,157억
	소득하위 50%이하	100%	만3세 만4세	57,000 57,000	191,000 172,000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소득하위 60%이하	60%	만3세	34,200	141,600	137,000	2,313억
			만4세	34,200	103,200		
	소득하위 70%이하	30%	만3세 만4세	17,100 17,100	57,300 51,600		
종일반비	소득하위 70%이하	100%	만3~5세	30,000	50,000	126,000	682억

다. 2010년도에는, 2,313억원의 지원액으로 약 137,000명이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3) 종일반비 지원

지원대상은 유아학비 지원대상 중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원아이다. 종일반 이용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해 1일 8시간 이상의 종일제 교육과정을 신청한 경우를 의미하며, 지역별로 시·도 교육청 여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종일반 급·간식비 등으로도 지원하고 있다. 2010년에는 전국적으로 682억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약126,000명이 종일반 지원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 나.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 사업에 속하는 지원비

로는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가 있다. 근무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및 도농복합지역의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교사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교육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지원 대상은 학급담임교사이며, 이들에게 담임수당으로 월 11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립유치원 교사에 수당을 제공하는 곳이 많아 지원수준에 차이가 있다.

약 253억원 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며, 경기, 서울, 부산 지역에서 지원규모가 비교적 크다. 시지역을 중심으로 사립유치원이 많이 분포된 까닭이며, 제주를 제외하면 강원도와 충북 지역이 처우개선비 지원액이 낮다. 사립유치원 교사, 특히 근무여건이 대도시 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할 수 있는 농어촌이나 소규모 도시 지역의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교사수당이 우선 지급된 것은 교사들의 사기진작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표 3 〉 시도별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지원 성과(2009년)

단위: 백만원

지역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지역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서울	5,550	강원	476
부산	2,097	충북	476
대구	959	충남	752
인천	1,440	전북	1,188
광주	732	전남	617
대전	1,133	경북	1,246
울산	683	경남	1,816
경기	6,008	제주	158
계		25,331	

**다. 유치원 교육력 제고**

유치원 교육력 제고 사업은 근년에 시작된, 유치원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결과이다. 교사의 근무여건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체교사 지원 정책, 인력지원인 3세대 하모니 사업 등 대부분이 유치원 현장에서 환영 받고 있으며,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희망유아 교육사 사업이나 종합복지서비스 등은 유아교육의 지역 사회내 역할을 보다 공고히 하고 교육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유치원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전체 유치원 취원아의 다수(78.1%, 2009년 기준)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 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유아 공교육 체제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모든 사립유치원(3,821개원)으로 2010년 기준 원당 3,731천원을 지원하여 총 19,324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2) 유치원 평가 사업비**

유치원의 운영실태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 제안을 통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유치원 운영의 효율성과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 이후 유치원 평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9년에는 시·도교육청별 '제1주기 유치원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2년차 평가대상 유치원에게 한하여 사업지원비를 제공하였다. 지원 대상은 유치원 평가에 참여하는 유치원 모두이고 원당 500천원이 지원되었다.

**3) 종일제 보조인력(3세대 하모니) 사업비**

맞벌이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유치원의 보육 업무 영역이 넓어지고 종일제 유치원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종일제 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종일제 유치원의 지원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력 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종일제 보조인

력 사업비를 통해 자원봉사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공·사립 종일제 유치원의 54.6%가 종일제 보조인력을 사용하여 이 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며, 지원단가는 원당 5,200천원, 2009년 총 소요 예산은 249억원이 되었다.

**4) 유아기본학습능력 발달 지원(희망유아 교육사 사업)**

유아기본학습능력 발달 지원 사업은 기관 미이용 유아와 유치원 원아 중 발달지연 유아를 선별한 후, 집중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발달 격차를 최소화하여 유아에게는 자긍심, 학부모에게는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주민등록상 취원대상아 수 5,000명당 1명을 기준으로 배치되며, 시도별로 최소 10명 배치를 계획하였다. 2009년 희망유아교육사 지원 사업의 예산은 2,766백만원이었다.

**5) 세대간 지혜나눔 시범사업**

'세대간 지혜나눔' 사업은 전문 교과목 중심의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학부모 및 현장의 요구를

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되었으며, 종일반의 특성화교육과정 운영지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유아에게 개별화·차별화된 교육 제공 및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목적으로 각계의 전문가와 퇴직 중·고령 지식인의 경험과 지혜를 유아교육에 활용,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사업이라고 하겠다. 사업의 지원대상은 공·사립유치원의 약 12%가 해당하는데 지원단가는 원당 2,400천원으로, 2009년 총 소요액은 31억원이었다.

**6) 유치원 종합복지서비스 사업**

유치원,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의 유아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결합을 통하여 종합복지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이를 통해 교육과 복지, 유아와 부모에 대한 서비스의 종합적, 체계적 제공을 통하여 종합복지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 기능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제주를 제외한 시·도별 각 1개원씩 공립 단설유치원 15개원으로, 전체 약 6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 표 4 〉 유치원 교육력 제고 사업성과(2009년)

단위: 백만원

구분	유치원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						
	단기대체 교사지원	세대간 지혜나눔	희망 유아교육사	교구 교재비	종합복지 서비스	유치원 평가	3세대 하모니
지원비용	968	3,145	2,766	19,324	662	2,825	24,904
지원대상	사립교원 1,075명	공·사립의 약 12%	시도별 10명이상	사립유치원 3,821개원	시도별 1개이상 단설유치원	평가참여 공·사립 유치원	종일제 유치원의 54.6%



### 7) 사립유치원 단기대체교사 지원

사립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경조사, 출산 등에 따른 휴가를 보장하고자 추진하게 된 사업이며,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 교사의 사기가 진작되고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출산 및 경조사 휴가가 필요한 사립유치원 교사로, 2010년 결혼 및 출산을 포함한 전체 사립유치원 교사의 5%(1,075명) 가량이 이 제도를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라. 유치원 환경개선

유치원의 종일제 운영 비율이 90%를 육박하는 현 시점에서, 종일제유치원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지원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유치원 종일제가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공립유치원 확충과 관련해서는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단일 중규모 이상의 유치원으로 개선하거나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쪽으로 정책이 전환 되고 있어, 많지는 않으나 단설유치원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고 있다.

유치원 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은 주로 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으로, 여기에는 공립병설유치원 환경개선비 지원과, 종일제 유치원 지원, 그리고 공립유치원 확충 사업이 속한다.

#### 1) 종일제 유치원 환경개선비

사업의 목적은 종일제 운영확대를 위한 시설환경개선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유아발달에 적합한 시설환경개선으로 유아교육·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종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모든 공·사립유치원으로, 총 7,319개원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종일제 운영에 적합한 놀이실, 수면실, 급식시설, 위생시설, 보안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종일반 환경을 개선하고 종일반 이용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 2) 공립 병설유치원 환경개선비

이 사업은 공립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거나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증설함으로써 유아공교육의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2009년 지원대상은 공립유치원 4,394개원이며 유치원당 4,690천원을 지원하여 총 소요예산은 206억원으로 책정되었다.

#### 3) 공립유치원 확충

유치원의 수를 보면 공립과 사립이 50대 50정도이나 재원아 수를 보면 공립과 사립의 비율이 22.2% 대 77.8%로 사립 재원아 수가 월등히 많다. 또한 공립유치원의 97.8%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며 이 중 66.6%가 1학급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실태는 공립유치원의 교육이 그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우려에서 국가는 점차 단설유치원을 늘려가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고 있으며, 2009년에는 단설유치원 신설에 352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15개원을 신설하였다.

### 마. 유아교육 정책 성과의 지표: 취원율과 국공립 이용률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를 가시적 측정치(지표)로 볼 수 있는 것의 하나가 유치원 취원율의 증가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전체 유치원아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것은 전체 아동 수의 감소로 인한 자연적 감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아동 수 대비 유치원 이용 원아수를 취원율로 보았을 때, 그 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다. <표 5>에 의하면,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5세아의 취원율이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3세아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4세아는 2007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5세아의 취원율은 2009년에 50%를 넘어섰다는 점은 유치원의 종일제 확대, 교육비 지원 확대, 교육력 제고, 다양한 홍보 등 여러 측면의 노력이 보태어진 성과라고 보겠다.

< 표 5 > 연령별 유치원 취원율

		단위: 명,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3세	원아수	74,824	77,669	93,005	99,499	100,406
	취원율	11.7	13.9	18.8	20.2	21.2
4세	원아수	176,963	170,652	170,726	184,178	185,195
	취원율	28.5	26.7	30.5	37.2	37.6
5세	원아수	289,816	297,491	277,819	254,145	251,760
	취원율	45.2	47.9	43.4	45.4	50.9

< 표 6 > 해당 연령 총아동인구 대비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7.8	7.8	8.1	8.8	9.9

물론 취원율 증가 폭이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으나, 보육시설뿐 아니라 학원, 특히 외국어 학원의 폭발적인 증가를 감안할 때 지속적인 취원율의 증가는 고무적인 결과이다.

또 하나의 성과 측정치(지표)로 볼 수 있는 것은,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의 증가이다. 유치원 원아 중 23.4%가 국공립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마다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바, 이는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한편 전체 아동 인구 대비 국공립유치원 이용 아동 수를 구해보면, 다음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 이전까지 이용률 증가에 담보 상태를 보이다가 2008년에 조금 높아지고 다시 2009년에는 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므로, 소규모 공립유치원의 폐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공립유치원 확충 정책은 차츰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향후 5세아를 의무·무상 교육화하여 의무

교육 연령이 낮아지는 등 새로운 정책 논의가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위와 같은 경향은 근년 내로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유아교육 전체를 보면, 취업율이 높아지고 국공립 이용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정책적 성과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이 무리는 아닐 것이다.

## 2. 유아교육 정책의 과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를 인정하면서, 향후 보다 더 발전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에 일조하는 의미에서,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학비지원의 기본 방향에 관한 논의로, '5세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를 앞당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유아학비 지원의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라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물론 현재처럼 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득하위 70%까지 학비를 지원하고 점차 범위를 늘여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연령별 학비지원비율을 보면 만5세는 53.3%, 만4세는 52.3%, 만3세는 56.4%로, 만5세보다 만3세아의 지원비율이 높다. 이것은 만3세아의 취업율이 5세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도 성과가 큰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만5세아 무상교육은 3,4세아 차등교육비와 달리 취학전 1년 교육에 대한 보편화를 추구하는 학비지원 제도이다.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유아가 수준 높은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라면 향후에는 3,4세아 교육비 지원 비율을 늘이는 것보다는 5세 무상교육의 전

면실천에 대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종일반 지원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육기관인 유치원이기는 하지만 종일반은 교육보다는 취업모 자녀를 위한 보육위주 프로그램이 주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때, 종일반은 선택이 아닌 모든 취업모 가정을 위한 서비스의 역할을 해야 한다. 보육시설이 종일제를 기준으로 보육료를 산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종일제에 대한 교육비를 낮추거나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종일반을 이용하는 취업모 가정이 부담 없이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치원 기능을 보편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종일반 이용료의 지원은 종일반 제도를 확고히 하는 데 중요한 변수이다.

셋째, 진행되고 있는 유치원 교육력 제고 사업의 세부적 개선이 필요하다. '세대간 지혜나눔 사업'은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유치원 종일제 특성화 교육 및 특별활동 인증제<sup>2)</sup>와의 연계 속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희망유아교육사업'은 정부 타부처의 복지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정확한 고찰이 필요하다. 즉 희망유아교육사가 실제 가정으로 찾아가서 교육 대상아를 찾아내고 교육적 처치(intervention)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담당 공무원들이 토로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실상 유치원에 다니는 발달지연 아동에게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바, 예

를 들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드림스타트사업 등과 연계하여 유아교육사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보육교사와 희망유아교육사가 연계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거나 혹은 유치원 재원아에게만 국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교육비 지원과도 연결되는 내용이지만, 결론적 입장에서 포괄적인 과제를 제안한다면, 세계적 수준과 발맞추어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큰 폭으로 확대해감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률을 낮추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

다는 것이다. OECD 주요 국가의 유아교육 비용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률은 최소 0%(프랑스)에서 최대 60%(미국)에 이르고 있다(OECD, 2006)<sup>2)</sup>.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아교육 비용 부담률은 77.8%정도에 이른다<sup>3)</sup>.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5세무상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차등교육비 지원과 종일반비 지원 등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률을 낮추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될 때 유아교육 선진화는 한층 더 가까워 질 것이다.

1) '유치원 특별활동 인증제'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해 2010년 연구과정을 거쳐 2011년 시범적용 될 예정이다.

2) OECD(2006), Starting Strong II-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3) 육아정책연구소 내부자료(2009).